

유아의 공격성 발달 궤적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수정¹⁾ 정익중²⁾

요약

본 연구는 유아의 공격성 발달 궤적이 부모 관계(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사 관계(교사-유아 상호작용), 또래 관계(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 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한국아동패널의 4차-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만 4세 1,703명, 만 5세 1,662명, 만6세 1,620명을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4세 시기의 유아의 공격성은 유아마다 개인차가 있고,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공격성은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4세 시기의 유아의 공격성의 초기치는 6세 시기의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조사 기간 3년 동안 공격성의 변화율은 교사, 또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부모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공격성이 높은 유아들에 대한 조기개입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래 관계나 교사 관계에 문제 있는 유아들에 대한 공격성 사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공격성, 발달궤적, 부모 관계, 교사 관계, 또래 관계

I. 서론

최근 대가족 생활양식에서 부모-자녀 중심의 핵가족으로의 이행, 이혼과 가족 해체, 취업모의 증가 등 21세기의 다양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유아의 정서·행동 문제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예전에 비해 많은 유아들은 심각한 정서·행동 문제로 적절한 심리치료를 필요로 한다.

1)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후연구원

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아의 정서·행동 문제 중에서 가장 도전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공격성이다(Zahrt, & Melzer-Lange, 2011). 공격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Shaw(2006)는 영유아의 공격성에 대해 “행동의 공격적인 의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위협할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향한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영유아의 공격성은 성, 기질, 부모의 양육 방식, 아동학대와 방임, 폭력적 미디어의 노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Shaw, & Gilliom, 2000; Reebye, 2005; Schick, & Cierpka, 2016; Zahrt, & Melzer-Lange, 2011).

영유아의 공격성은 단기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공격성은 성장했을 때 신체적 폭력, 비행, 관계적 문제 등과 같은 문제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Brame, Nagin, & Tremblay, 2001; Broidy, Nagin, Tremblay et al., 2003; Côté, Vaillancourt, LeBlanc et al., 2006; Pouwels, & Cillessen, 2013). 심각한 경우에는 청소년 범죄나 성인 범죄를 초래하게 되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개인과 사회에 상당한 손실을 미칠 수 있다(Bor, Najman, O’Callaghan et al., 2001; 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s, 2004).

이러한 우려는 초기의 공격성이 성장하면서 낮은 학업성취, 정서 및 행동 문제, 대인관계 등의 발달 산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가속화하였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대부분 주로 한 시점만을 중심으로 하는 횡단적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두 개 이상의 시점을 중심으로 공격성과 여러 발달 산물의 관계를 살펴보는 종단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시점에 기초한 변수들의 단편적인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인과성 검증에 한계가 있고, 횡단적으로만 볼 때에는 높고 낮음의 단순한 상태만 파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김광혁, 2007; 정익중·권은선·박현선, 2011). 특히 성장하면서 공격성이 안정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거나 증가하면서 발달 산물에도 연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공격성이 성장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여러 발달 산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격성의 종단적 변화 양상과 개인차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발달 산물과의 관계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한편, 종단적인 발달궤적을 살펴보는 연구는 횡단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높고 낮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높았다가 낮아지거나 낮았다가 높아진 변화 양상과 추세를 분석에 포함할 수 있어 훨씬 더 내용을 풍부하게 살펴볼 수 있다(정익중·권은선·박현선, 2011). 또한 공격성의 변화 양상과 개인차를 파악할 수 있는 발달 궤적은 횡단 연구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공격성 발달에서 이질

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Nagin & Trembly, 1999; Trembly, 2000).

이러한 특성 때문에 최근 외국에서 공격성에 관한 연구는 유아를 포함한 아동 및 청소년의 다양한 공격성 발달 궤적을 추정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ôté, Vaillancourt, Barker et al., 2007; Côté, Vaillancourt, LeBlanc et al., 2006; Cui, Colasante, Malti et al., 2016; Olson, Sameroff, Lansford, et al., 2013).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Alink, Mesman, Van Zeijl et al., 2006; Bongers, Koot, Van Der Ende et al., 2004)에서는 공격성이 점차 성장하면서 감소한다고 하였지만 일부 연구(Campbell, Spieker, Burchinal et al., 2006; Côté, Vaillancourt, Barker et al., 2007; Trembly, Nagin, Séguin et al., 2004)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격성이 증가하는 수준을 나타내거나 높은 공격성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공격성 발달궤적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유아 시기의 공격적 행동은 흔하지만, 초기 발달 과정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Trembly, 2000). 즉, 유아들은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공격적 행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언어나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하므로 협상과 같은 대안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공격성이 감소하게 된다(Côté, Trembly, Nagin et al., 2002; Trembly, 2000). 하지만 소수의 유아들은 지속적으로 많은 공격성을 또래나 어른들에게 보여 주는 경우가 있다(Trembly, 2000). 이러한 개인차는 4~10세까지 공격성의 발달궤적을 추적한 결과, 공격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과 안정적으로 낮은 집단으로 나타난 Villancourt, Miller, Fagbemi 외(2007)의 연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 적응적인 사회적 기술이 나타나 초기 안정적인 수준의 공격성을 보여주는 유아들과 초기 공격성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거나 문제가 있는 유아들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초기 공격적 행동의 발달 궤적의 정도는 성장하면서 이후의 적응 문제를 예측하게 하고, 안정적이거나 높은 수준의 공격성은 부족한 정서 조절 및 사회적 기술, 충동적 행동, 또래 관계, 비행, 학업성취, 인지 등 여러 발달 산물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돕기 때문이다(Brennan, Shaw, Dishion et al., 2012; Campbell, Spieker, Burchinal et al., 2006; Gray, Carter, Briggs-Gowan et al., 2014; Reef, Diamantopoulou, van Meurs et al., 2010; 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 William, 2004; Wildeboer, Thijssen, van IJzendoorn et al., 2015).

이처럼 초기의 지속적인 공격성은 부정적인 결과의 위험요인임을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지만 부모 관계, 또래 관계, 교사 관계 등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다(Ladd & Burgess, 1999). 초기의 건강한 관계의 발달은 이후의 유치원이나 학교 등 적응 문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업이고, 초기의 부모, 또래,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성공은 이후의 학교 적응 등 적응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에 해당한다(Appleyard, & Berlin, 2007; Hughes, 2012; Parker, Rubin, Erath et al., 2006). 그리고 대인간의 관계의 어려움은 이후 정신 병리를 예측하게 한다(Sroufe, Duggal, Weinfield et al., 2000).

초기 공격성의 발달궤적이 이후의 부모 관계, 교사 관계, 또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면 초기 공격성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 교사, 또래 관계 등이 공격성 발달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Hamre, & Pianta, 2001; O'Connor, Dearing, & Collins, 2011; Silver, Measelle, Armstrong et al., 2010; Takahashi, Okada, Hoshino et al., 2015)도 부족하지만, 반대로 공격성 발달 궤적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공격성 발달 궤적이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로 기능하는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수행된 두 편의 연구를 살펴보면, Campbell, Spieker, Burchinal 외(2006)의 연구에서는 24개월~9세까지 1,195명 중에서 높은 안정적 공격성 궤적을 나타낸 3%는 부족한 사회적 기술,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 또래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당히 안정적인 공격성 궤적을 나타낸 15%는 부족한 조절능력과 부주의를 보여주었다. 적당한 초기 공격성 수준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감소한 추세를 보인 12%는 이후에 잘 적응하였지만 낮은 수준의 안정적인 공격성을 보여준 25%는 예기치 않은 사회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의 공격성의 발달궤적과 대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초기에 공격성이 출현하고 안정적인 경우에 낮은 또래 수용과 갈등적인 교사-아동 관계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dd, & Burgess, 1999). 최근 Baydar과 Akcinar(2017)의 연구에서는 1,009명의 영유아를 5년간 조사한 결과, 3세 시기의 어머니의 엄하고 반응적인 훈육 방식은 연속적인 공격성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3세 시기의 공격성은 연속적인 부모의 양육 행동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유아의 공격성 발달 궤적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며 실제 우리나라 유아들에게도 이러한 결과가 적용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외국의 연구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입증된다면 인과 관계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차후 공격성과 부모, 교사, 또래 관계 간의 양방향 연구를 수행하는데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공격성과 대인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많지 않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모나 교사 관계보다는 유아나 초등학생의 공격성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김성아·최진아, 2011; 심희옥, 2005; 유안진·한유진·김진경, 2002; 정익중, 2008). 이중에서도 유아를 대상으로 공격성과 교사관계 및 또래 관계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윤소정·김민경(2011)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 250명과 교사 52명을 조사한 결과, 유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교사-유아 관계에서 친밀감이 낮고, 갈등이 높았으며,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또래에게 공격적·과잉활동적 행동과 비사교적인 행동이 높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부모와의 관계는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횡단적으로 설계된 연구로서 공격성의 변화 양상과 개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개인에 따른 공격성의 높고 낮음의 횡단적 상태뿐만 아니라 높았다가 낮아지거나 낮았다가 높아진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종단 연구를 진행한 국내연구로는 정현주(2011)가 아동의(초4~중1)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가해 경험 발달 궤적 간 종단적 상호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긴 하지만 이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교사나 부모 관계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유아기(3세~5세) 관계적 공격성의 발달궤적을 살펴본 신유림(2012)의 연구는 어떠한 요인이 공격성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초기 공격성이 성장하면서 개인차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이러한 공격성 발달이 이후의 적응적인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유아기에 가장 중요한 대인 관계에 해당하는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면 이른 영유아 시기에 개인차에 따른 공격성 발현 시 적절한 개입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5~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만4세부터 만6세 시기의 유아의 공격성 발달궤적이 만 6세 시기의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른 시기의 공격성 발달이 대인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조기 개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유아의 공격성 발달궤적은 어떠한가?
- 2) 유아의 공격성 발달궤적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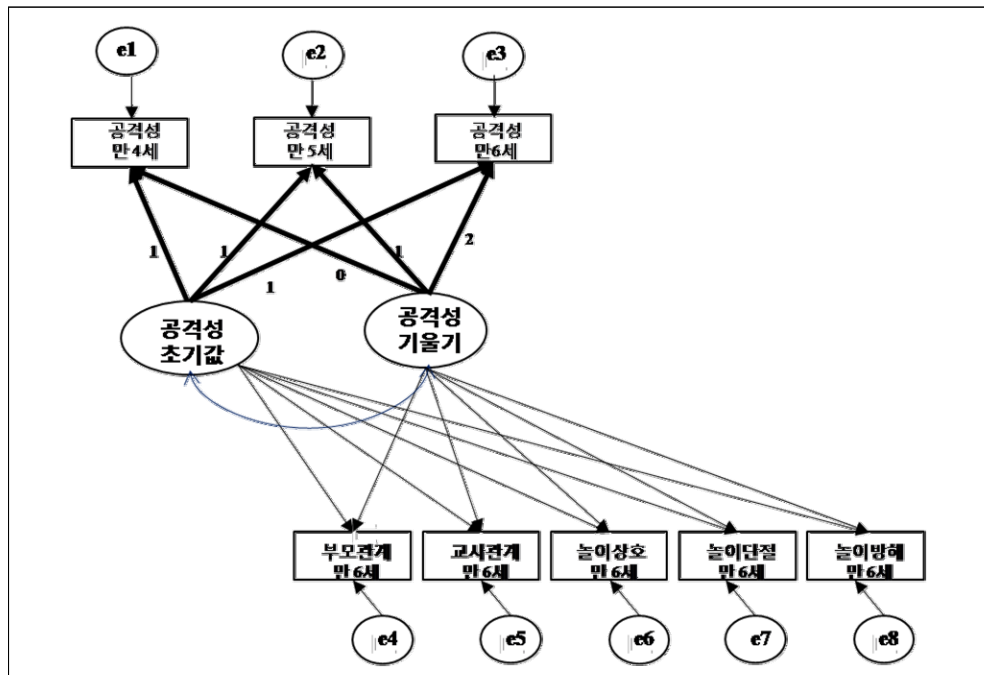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한국아동패널 중에서 5~7차년도의 만 4~6세 유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수준의 자료로, 2008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전국의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2,150명의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관련 요인들의 영향 관계와 관련하여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와 경로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모형을 정리하고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발달궤적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공격성은 만 4~6세(5~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부모 관계(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사 관계(교사-유아 상호작용), 또래 관계(또래 놀이행동: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단절)는 만6세(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 공격성

유아의 공격성은 Achenbach와 Rescorla(2000)의 CBCL 1.5~5(Child Behavior Checklist preschool 1.5~5)를 김영아·이진·문수중 외(2009)가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적합하도록 표준화한 유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1.5~5)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공격성 문항은 “다른 사람을 때린다,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등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3점 Likert 척도(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로 부모가 응답하도록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공격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은 왜도와 첨도가 정상분포에 가까운 T 점수를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Cronbach's a* = .87(만 4세), .87(만 5세), .87(만 6세)이었다.

나.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 자녀 상호작용은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 (ECLS-K)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 중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질문하는 일부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문항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아이와 함께 퍼즐이나 게임을 한다, 아이와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한다” 등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4점 Likert 척도(전혀 하지 않음=1점, 매일함=4점)로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참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Cronbach's a* = .83(만 6세)이었다.

다.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Bredekamp(1985)의 ECOI를 일부 수정한 Holloway와

Reichhart-Erickson(1988)의 문항을 김명자(1991)가 번역한 것을 토대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일부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문항은 “아이에게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자주 상호작용한다, 아이의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아이와 다정하고 자상한 태도로서 대화를 나눈다” 등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음=1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교사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대한 *Cronbach's a* = .92(만 6세)이었다.

라. 또래 놀이행동

또래 놀이행동은 Fantuzzo, Coolahan, Mendez외(1998)의 척도를 최혜영·신혜영(2008)이 타당화한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또래 놀이행동은 총 30문항으로 놀이 상호작용 9문항, 놀이 방해 13문항, 놀이 단절 8문항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면, 놀이 상호작용은 “친구를 돕는다, 친구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 놀이방해는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놀이단절은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 놀이를 함께 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한다” 등으로 이루어진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항상 그렇다=4점)로 교사가 응답하도록 이루어졌으며, 역채점 문항의 경우에는 역코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 놀이 상호작용 수준이 높고, 놀이 방해나 놀이 단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또래 놀이행동에 대한 *Cronbach's a* = .81(만 6세 놀이 상호작용), .88(만 6세 놀이 방해), .89(만 6세 놀이 단절)이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를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고,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위해 Amos 21.0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의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유아의 공격성의 변화궤적을 추정하였다.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의 조건모형을 사용하여 유아의 공격성 발달궤적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모든 변수의 정보를

사용하여 결측치를 추정하면서 분석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 RMSEA, TLI, CFI를 통해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TLI, CFI는 .90이상, RMSEA는 .06미만이면 모형이 적합하고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된다(Hu & Bentler, 1999).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독립변수	공격성(만4세)	53.63	5.49	1.65	2.47
	공격성(만5세)	52.78	4.93	2.03	3.75
	공격성(만6세)	52.03	4.27	2.35	5.44
종속변수	부모-자녀 상호작용(만6세)	2.25	.50	.58	.73
	교사-유아 상호작용(만6세)	4.26	.50	-.40	-.18
	또래 놀이상호작용	3.08	.45	-.65	1.24
	놀이행동	1.64	.59	1.12	1.14
	(만6세) 놀이방해	1.94	.52	.63	-.06

본 연구의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공격성 평균은 만 4세 53.63점(SD = 5.49), 만 5세 52.78점(SD = 4.93), 만 6세 52.03점(SD = 4.27)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소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만 6세 시기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평균은 2.25점(SD = .58)으로 최대값이 4점임을 감안할 때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만 6세 시기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평균은 4.26점(SD = .50)으로 최대값이 5점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만 6세 시기의 또래 놀이행동 중에서 놀이 상호작용의 평균은 3.08점(SD = .45), 놀이 단절의 평균은 1.64점(SD = .59), 놀이 방해의 평균은 1.94점(SD = .52)이었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의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에서는 모든 변수의 왜도(절대값 3 미만)와 첨도(절대값 10 미만)가 정규분포 가정(Kline, 2010)을 만족시켰다.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시점의 공격성의 상호작용은 서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만 4~6세 유아의 공격성과 만 6세 시기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만 6세 시기 유아의 놀이 상호작용은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놀이 방해는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만 6세 시기의 교사-유아의 상호작용과 놀이 단절은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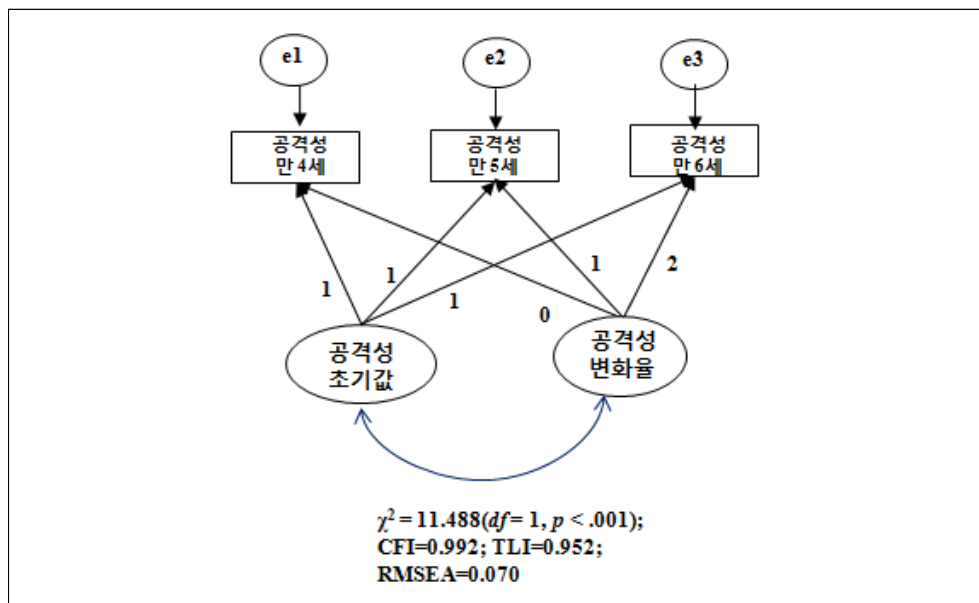
구분	1	2	3	4	5	6	7	8
1. 공격성(만4세)	1	-	-	-	-	-	-	-
2. 공격성(만5세)	.40**	1	-	-	-	-	-	-
3. 공격성(만6세)	.29**	.38**	1	-	-	-	-	-
4. 부모-자녀상호작용(만6세)	-.08**	-.09**	-.06*	1	-	-	-	-
5. 교사-유아상호작용(만6세)	.02	.03	-.04	.01	1	-	-	-
6. 놀이상호작용(만6세)	-.09**	-.09**	-.02	.04	.22**	1	-	-
7. 놀이단절(만6세)	.01	.05	.05	-.04	-.20**	-.38**	1	-
8. 놀이방해(만6세)	.09**	.04	.02	-.03	-.16**	-.34**	.59**	1

* $p < .05$, ** $p < .01$

2. 공격성의 무조건모형

유아의 공격성 변화궤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무조건모형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 <표 3> 참조). χ^2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chi^2 = 11.488$, $df = 1$, $p < .001$), 다른 모형적합도가 수용가능하게 나타나 본 무조건모형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RMSEA = 0.070; CFI = 0.992; TLI = 0.952). 또한 무조건모형에서 성장모수치를 살펴보면, 공격성의 초기치 평균은 53.463($p < .001$)으로 이는 출발점에서 공격성의 평균이 53.463 정도이었고, 이것이 유아들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변화율의 평균은 -.740($p < .001$)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마다 공격성이 -.740씩 감소하며 이는 변화율이 유아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격성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변량이 각각 15.020, 3.988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들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개인차가 충

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영향 미치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조건모형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공격성 발달궤적의 무조건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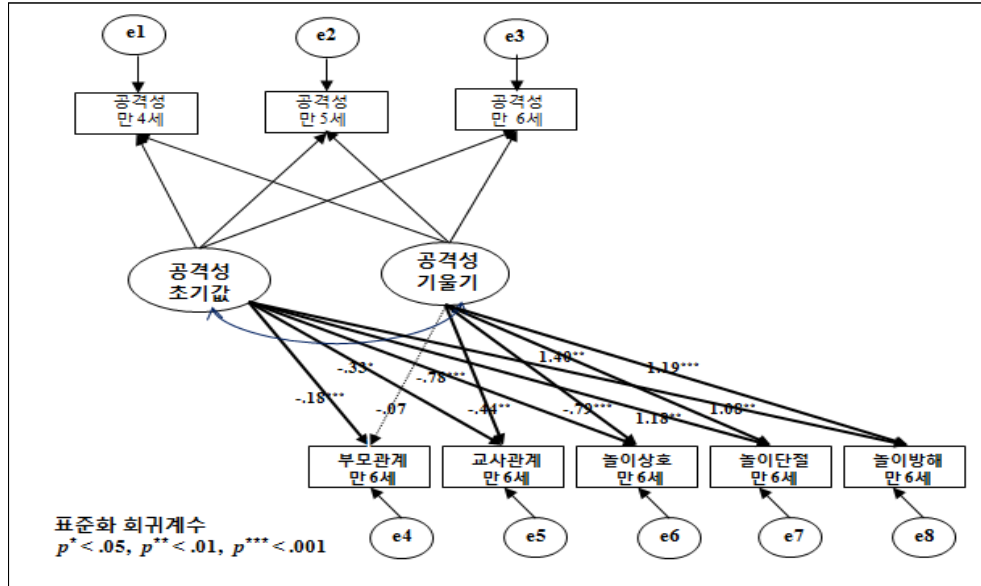
<표 3> 무조건모형의 분석결과

구분	초기치		변화율	
	평균	변량	평균	변량
공격성	53.463***	15.020**	-.740***	3.988***

** $p < .01$, *** $p < .001$

3. 공격성의 조건모형

공격성 발달 궤적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건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3], <표 4> 참조). 전통적 절대 적합지수인 χ^2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chi^2 = 49.52, df = 16, p < .001$), 다른 모형적합도가 수용가능하게 나타나 조건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RMSEA=0.03; CFI=0.98; TLI=0.97).



[그림 3] 공격성 발달궤적의 조건모형

<표 4> 조건모형의 분석결과

경로	b	β	SE	C.R.
공격성 초기치 → 만 6세 부모-자녀상호작용	-.02	-.18	.01	-3.21**
공격성 변화율 → 만 6세 부모-자녀상호작용	-.09	-.07	.07	-1.20
공격성 초기치 → 만 6세 교사-유아상호작용	-.04	-.33	.02	-2.32*
공격성 변화율 → 만 6세 교사-유아상호작용	-.54	-.44	.18	-3.04**
공격성 초기치 → 만 6세 놀이상호작용	-.09	-.78	.03	-3.40***
공격성 변화율 → 만 6세 놀이상호작용	-.87	-.79	.26	-3.31***
공격성 초기치 → 만 6세 놀이단절	.18	1.18	.06	2.88**
공격성 변화율 → 만 6세 놀이단절	1.99	1.40	.61	3.28**
공격성 초기치 → 만 6세 놀이방해	.14	1.08	.05	3.13**
공격성 변화율 → 만 6세 놀이방해	1.49	1.19	.45	3.32***

* $p < .05$, ** $p < .01$, *** $p < .001$

최종 분석 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공격성의 초기치는 만 6세 시기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지만 변화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공격성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모두 만 6세 시기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모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격성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만 6세 시기의 또래 간 놀이 상호작용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놀이 단절

과 놀이 방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4세 시기(초기치)의 유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만 6세 시기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낮았고($\beta = -.18, p < .01$), 조사기간 3년 동안 유아의 공격성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만 4세 시기(초기치) 유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만 6세 시기의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낮았고($\beta = -.33, p < .05$), 조사기간 3년 동안 공격성 감소 속도가 빠를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증가했다는($\beta = -.44, p < .01$) 것을 의미한다. 만 4세 시기(초기치)의 유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만 6세 시기 유아의 놀이 상호작용 수준이 낮았고($\beta = -.78, p < .001$), 조사기간 3년 동안 공격성의 감소 속도가 빠를수록 만 6세 시기 유아의 놀이 상호작용 수준이 증가했다는($\beta = -.79, p < .001$)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 4세 시기(초기치)의 유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만 6세 시기의 놀이 단절($\beta = 1.18, p < .01$)과 놀이 방해($\beta = 1.08, p < .01$) 수준이 높았고, 조사기간 3년 동안 공격성의 감소 속도가 느릴수록 만 6세 시기의 놀이 단절($\beta = 1.40, p < .01$)과 놀이 방해($\beta = 1.19, p < .001$)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5~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만 4~6세 유아의 공격성 발달 궤적이 만 6세 유아의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횡단적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종단적으로 공격성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가 소수이고, 특히 공격성 발달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격성 발달 궤적의 개인 간 차이를 추정하고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4세 시기의 유아의 공격성은 유아마다 개인차가 있고,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공격성은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만3세에서 만5세까지 313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 유아기 관계적 공격성의 발달 궤적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발달 궤적은 개인차가 나타났다는 신유림(201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4세에서 18세까지 2,076명의 종단 분석에서 공격성이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냈다고 보

고한 Bongers, Koot, Van Der Ende 외(200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는 Côté, Tremblay, Nagin 외(2002)와 Tremblay(2000)의 주장과 같이 유아들은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언어적 능력의 제한으로 공격적 행동을 보이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언어나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하므로 협상과 같은 대안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공격성이 감소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른 시기의 공격성의 발달 궤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차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선행연구결과(Campbell, Spieker, Burchinal et al., 2006; Villancourt, Miller, Fagbemi et al., 2007; Wildeboer, Thijssen, van IJzendoorn et al., 2015)와는 부분적으로 유사하지만 분석 방법에 차이가 있어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국내의 초중고생의 공격성 발달 궤적에 관한 일부 연구(김동기·홍세희, 2007; 김세원·김예성, 2009; 이은주, 2010)에서는 성장하면서 공격성 발달 궤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고, 일부 연구(박애리, 2014; 서미정, 2009; 최정아, 2013)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공격성 발달궤적이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만 4세 시기 유아의 공격성의 초기치는 만 6세 시기의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조사 기간 3년 동안 공격성의 변화율은 교사, 또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부모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 4세 시기의 유아의 공격성이 증가할수록 만 6세 시기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 놀이 상호작용 수준이 낮아지고, 놀이 방해와 놀이 단절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종단 연구로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시기까지 출현한 공격성이 안정적인 경우에 또래 수용이 낮고, 갈등적인 교사-아동 관계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Ladd와 Burgess(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유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교사-유아 관계에서 친밀감이 낮고, 갈등 및 의존이 높으며, 또래에게 공격적·과잉활동적 행동과 비사교적인 행동 수준이 높다는 국내의 횡단연구 결과(윤소정·김민경, 2011)와도 유사하였다. 그리고 3세부터 8세까지 유아의 공격성 발달궤적이 부모의 양육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Baydar과 Akcinar(201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였다. 이처럼 공격성의 초기치가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미치는 결과는 횡단 연구결과로서 해석되는데 국내외 연구결과를 비교했을 때 그 결과가 일관되고 있기에 유아의 공격성은 부모, 교사, 또래 관계의 예측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격성의 변화율에서는 조사 기간 3년 동안 유아의 공격성의 감소 속도가 빠를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또래 간 놀이 상호작용 수준이 증가하고, 공격성의 감소 속도가 느릴수록 또래 간 놀이방해와 놀이단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간 공격성의 평균 변화율 역시 앞서 제시한 유아의 공격성의 초기치와 교사 및 또래 관계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서 유아기 동안 공격성이 발현될 경우, 공격성을 빠르게 감소시켜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인 조기개입을 해주는 것이 교사-유아 관계나 또래 간 관계를 증진시켜 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사나 또래관계와 달리 공격성의 평균 변화율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부모-자녀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에 부모가 둔감하여 유아 공격성의 변화됨을 쉽게 인식할 수 없어서 변화율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된다(Vaillancourt, Miller, Fagbemi et al., 2007). 그리고 부모와 달리 교사는 유아들의 행동을 주기적으로 관찰 및 기록 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유아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며, 교실에서 여러 아이들을 만남으로 인해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아의 공격성의 변화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 공격성의 변화율이 교사 관계나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공격성이 발현했을 때 긍정적인 부모, 교사, 또래 관계를 위해서는 공격성의 조기개입이 매우 중요하며, 공격성의 빠른 감소를 위한 효과적이면서 지속적인 개입은 교사나 또래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들은 기존 선행연구(Appleyard, & Berlin, 2007; Hughes, 2012; Parker, Rubin, Erath et al., 2006; Sroufe, Duggal, Weinfield et al., 2000)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학교 적응 등 이후의 적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에 공격성이 높은 유아들의 경우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만 4세 시기의 공격성은 만 6세 시기의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공격성이 초기 발현될 시 조기 개입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가 유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부모나 교사 교육을 통해 공격성의 발달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의 기질, 유아의 공격적인 미디어 시청, 부모/교사의 스마트폰 사용 등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수정, 2016; 문혁준·홍현재, 2013; 유지은·김성재·황지은, 2017)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부모나 교사가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떠한 양육태도와 행동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안내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아의 공격성이 높아서 부모나 교사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더불어 놀이 치료나 정서 조절 등을 중심으로 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관계나 교사 관계에 문제 있는 유아들에 대한 공격성 사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공격성의 변화율은 또래 관계나 교사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교사는 또래 관계나 교사 관계에 문제 있는 유아들의 경우에는 공격성 수준을 사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 학기마다 정기적으로 유아의 공격성 수준을 사정하고, 장기간 동안 공격성이 떨어지지 않는 유아들을 선별하며, 공격성 감소 속도가 늦은 유아들의 경우에 공격성의 빠른 감소를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바대로 공격성이 높은 것은 당연히 문제로 바로 인식되지만 이뿐만 아니라 공격성이 빨리 감소하지 않는 것도 매우 위험한 지표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개입과 교육이 필요하다. 공격성이 빨리 감소하지 않는 유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에서 해마다 교사가 변경될 때 이전 담임교사가 새로운 담임교사에게 해당 유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여 일관된 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입과 더불어 공격성이 높은 유아들의 경우에는 또래 관계나 교사 관계가 부정적이므로 이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교사-유아 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나 또래 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이 공격성에 대한 측정이 만 4세부터 이루어졌고, 7차년도까지만 데이터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아주 이른 영아 시기 및 초등학교 이후 시기의 공격성 발달 궤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완적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른 영아 시기 및 초등학교 이후까지 공격성 발달 궤적이 개인차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이러한 공격성 발달 궤적이 초등학교 시기나 그 이후에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변수중심적(variable-centered) 접근방법으로 공격성의 변화 상태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기에 공격성 발달의 질적 차이에 따른 집단유형별 공격성의 발달을 살펴보는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중심적(person-centered)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공격성 발달의 질

적 차이를 반영하여 상이한 유형의 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격성은 부모의 설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정보의 다각화(triangulation)를 위해 관찰법을 활용하거나 교사 등 다른 정보원을 활용한 다차원적인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각화를 통해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발달के적 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영향 미치는 것을 살펴보았지만 차후 연구에서는 반대로 부모, 교사, 또래관계의 발달के적 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또 또는 병렬적 잠재성장모형 등을 통해 양방향적 영향관계에 대해 검토하는 것도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광혁(2007).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도 발달के적 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아동학회지, 28(5), 127-141.
- 김동기·홍세희(2007).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검증. 조사연구, 8(2), 21-42.
- 김명자(1991). 유아교육기관의 질과 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아·최진아(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적 공격성 및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관계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15(1), 17-28.
- 김세원·김예성(2009). 청소년의 신체적 공격성 발달के적 및 예측요인. 인간발달연구, 16(2), 87-107.
- 김수정(2016). 부모의 양육행동, 미디어 사용 유형, 유아의 정서 및 행동 문제의 구조관계. 육아정책연구, 10(1), 73-93.
- 김영아·이진·문수중·김유진·오경자(2009). 한국판 CBCL 1.5-5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임상, 28(1), 117-136.
- 문혁준·홍현재(201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2(4), 245-274.
- 박애리(2014). 부모간의 폭력노출 및 학대 받은 경험이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0), 503-528.
- 서미정(2009).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와 비행, 우울/불안 및 학업성취감: 잠재성장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0(2), 141-167.

- 신유립(2012).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유아기 관계적 공격성의 발달궤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2), 189-196.
- 심희옥(2005). 아동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및 친사회성과 또래관계와의 횡단적 관계. *아동학회지*, 26(2), 121-134.
- 유안진·한유진·김진경(2002).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 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3), 79-90.
- 유지은·김성재·황지은(2017).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공격성 및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 325-335.
- 윤소정·김민경(2011). 유아의 공격성이 교사-유아관계와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49-68.
- 이은주(2010).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중단적 공동발달: 잠재성장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1(4), 171-200.
- 정익중(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29(4), 79-95.
- 정익중·권은선·박현선(2011). 아동의 학업성취 발달궤적의 예측요인과 발달산물. *한국아동복지학*, 34: 63-93.
- 정현주(2011). 아동기 또래괴롭힘 가해/패해 경험과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간 관계와 예측 요인.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정아(2013). 초기 청소년기 공격성의 발달적 변화와 가족 영향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 294-307.
- 최혜영·신혜영(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 (PIPPS) 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and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Alink, L. R., Mesman, J., Van Zeijl, J., Stolk, M. N., Juffer, F., Koot, H. M., et al. (2006). The early childhood aggression curve: Development of physical aggression in 10 to 50 month old children. *Child Development*, 77(4), 954-966.
- Appleyard, K., & Berlin, L. (2007). *Supporting healthy relationships between you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Lessons from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Durham, North Carolina: Center for Child and Family Policy, Duke University.
- Baydar, N., & Akcinar, B. (2017).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the trajectories of mothers' harsh discipline, responsiveness and aggression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5(1), 1-15.

- Bongers, I. L., Koot, H. M.,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4).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xternalizing behavio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5(5), 1523-1537.
- Bor, W., Najman, J. M., O'Callaghan M., Williams, G. M., & Anstey, K. (2001). Aggression and the development of delinquent behaviour in children. www.community.nsw.gov.au 에서 2017년 3월 1일 인출함.
- Brame, B., Nagin, D. S., & Tremblay, R. E. (2001).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hysical aggression from school entry to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4), 503-512.
- Bredekamp, S. (1985). *Guide to accreditation by the national academy of early childhood programs*.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Brennan, L. M., Shaw, D. S., Dishion, T. J., & Wilson, M. (2012). Longitudinal predictors of school-age academic achievement: Unique contributions of toddler-age aggression, oppositionality, inattention, and hyperactiv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8), 1289-1300.
- Broidy, L. M., Nagin, D. S., Tremblay, R. E., Bates, J. E., Brame, B., Dodge, K. A., et al. (200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hood disruptive behaviors and adolescent delinquency: A six-site, cross-natio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222.
- Campbell, S. B., Shaw, D. S., & Gilliom, M. (2000). Early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oddlers and preschoolers at risk for later mal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03), 467-488.
- Campbell, S. B., Spieker, S., Burchinal, M., Poe, M. D., & 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6). Trajectories of aggression from toddlerhood to age 9 predict academic and social functioning through age 12.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8), 791-800.
- Côté, S., Tremblay, R. E., Nagin, D., Zoccolillo, M., & Vitaro, F. (2002). The development of impulsivity, fearfulness, and helpfulness during childhood: Patterns of consistency and change in the trajectories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5), 609-618.
- Côté, S. M., Vaillancourt, T., Barker, E. D., Nagin, D., & Tremblay, R. E. (2007). The joint development of physical and indirect aggression: Predictors of continuity and change during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01), 37-55.

- Côté, S., Vaillancourt, T., LeBlanc, J. C., Nagin, D. S., & Tremblay, R. E. (2006). The development of physical aggression from toddlerhood to pre-adolescence: A nation wide longitudinal study of Canadia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1), 68-82.
- Cui, L., Colasante, T., Malti, T., Ribeaud, D., & Eisner, M. P. (2016). Dual trajectori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from mid-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Relations to sensation seeking, risk taking, and moral reason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4), 663-675.
- 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s. (2004).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ur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service provision, and further research. www.community.nsw.gov.au.에서 2017년 3월 2일 인출함.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411-431.
- Gray, S. A., Carter, A. S., Briggs-Gowan, M. J., Jones, S. M., & Wagnmiller, R. L. (2014). Growth trajectories of early aggression, overactivity, and inattention: Relations to second-grade rea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50(9), 2255-2263.
- Hamre, B. K., & Pianta, R. C. (2001). Early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trajectory of children's school outcomes through eighth grade. *Child Development*, 72(2), 625-638.
- Holloway, S. D., & Reichhart-Erickson, M. (1988). The relationship of day care quality to children's free-play behavior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1), 39-53.
- Hughes, J. N. (2012).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school adjustment: Progress and remaining challenge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14(3), 319-327.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add, G. W., & Burgess, K. B. (1999). Charting the relationship trajectories of aggressive, withdrawn, and aggressive/withdrawn children during early grade

- school. *Child Development*, 70(4), 910-929.
- Nagin, D., & Tremblay, R. E. (1999). Trajectories of boys' physical aggression, opposition, and hyperactivity on the path to physically violent and nonviolent juvenile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70(5), 1181-1196.
- O'Connor, E. E., Dearing, E., & Collins, B. A. (2011).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behavior problem trajectories in elementary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8(1), 120-162.
- Olson, S. L., Sameroff, A. J., Lansford, J. E., Sexton, H., Davis-Kean, P., Bates, J. E., et al. (2013). Deconstructing the externalizing spectrum: Growth patterns of overt aggression, covert aggression, oppositional behavior, impulsivity /in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between school entry and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5(03), 817-842.
- Parker, J. G., Rubin, K. H., Erath, S., Wojslawowicz, J. C., & Buskirk, A. (2006). Peer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and adjustment: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1. Theory and method* (2nd ed., pp. 419-493).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Pouwels, J. L., & Cillessen, A. H. (2013). Correlates and outcomes associated with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among elementary-school children in a low-income urban contex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2), 190-205.
- Reebye, P. (2005). Aggression during early years—infancy and preschool. *The Canadi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Review*, 14(1), 16-20.
- Reef, J., Diamantopoulou, S., van Meurs, I., Verhulst, F., & van der Ende, J. (2010). Predicting adult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from externalizing problem trajectories in a 24-year longitudinal study.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9(7), 577-585.
- Schick, A., & Cierpka, M. (2016). Risk factors and prevention of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for Educational Research Online*, 8(1), 90-109.
- Shaw, D. S. (2006).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early childhood. In H. E. Fitzgerald, B. M. Lester, & B. Zuckerman (Eds.), *The Crisis in Youth Mental Health: Critical Issues and Effective Programs, Vol. 1: Childhood disorders* (pp. 183-203). Westport, CT: Greenwood.
- Silver, R. B., Measelle, J. R., Armstrong, J. M., & Essex, M. J. (2010). The impact of parents, child care providers, teachers, and peers on early externalizing

- trajectori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8(6), 555-583.
- Sroufe, L. A., Duggal, S., Weinfield, N., & Carlson, E. (2000). Relationship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In A. J. Sameroff & M. Lewis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2nd ed., pp. 75-91).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Takahashi, Y., Okada, K., Hoshino, T., & Anme, T. (2015).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skills during early childhood and links to parenting practices in a Japanese sample. *PLoS One*, 10(8), e0135357(1-14).
- 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 William, F. A. (2004). Trajectories of physical aggression from toddlerhood to middle childhood: Predictors, correlates, and outcome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9(4), vii(1-143).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u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Tremblay, R. E., Nagin, D. S., Séguin, J. R., Zoccolillo, M., Zelazo, P. D., Boivin, M., et al. (2004). Physical aggression during early childhood: Trajectories and predictors. *Pediatrics*, 114(1), e43-e50.
- Vaillancourt, T., Miller, J. L., Fagbemi, J., Côté, S., & Tremblay, R. E. (2007). Trajectories and predictors of indirect aggression: Result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tudy of Canadian children aged 2 - 10. *Aggressive Behavior*, 33(4), 314-326.
- Wildeboer, A., Thijssen, S., Van IJzendoorn, M. H., van der Ende, J., Jaddoe, V. W., Verhulst, F. C., et al. (2015). Early childhood aggression trajectories: Associations with teacher-reported problem behaviou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9(3), 221-234.
- Zahrt, D. M., & Melzer-Lange, M. D. (2011).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ediatrics in Review*, 32(8), 325-332.

·논문접수 4월 6일 / 수정본 접수 5월 29일 / 게재 승인 6월 9일

·교신저자: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메일 ichung@ewha.ac.kr

Abstract

The Influence of Preschoolers' Aggression Trajectory on Relationships with Parents, Teachers and Peers

Soo Jung Kim and Ick-Joong Ch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eschoolers' aggression trajectory on parental relationship(parent-child interaction), teacher relationship(teacher-child interaction), and peer relationship(play interaction, play disturbance, play disconnection). We used the data of preschoolers aged 4-6 from the 5th to 7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ggression of preschoolers tended to decrease overall as preschoolers age, although individual differences existed. Second, the initial aggression of preschoolers aged 4 yea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lationships with parents, teachers, and peers at age 6. In addition, the rate of change of aggression during three years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n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peers, but did not affect relationship with parents.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early aggressive children need early intervention and aggression on children with problems in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peers need to be assessed.

Key word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aggression, developmental trajectory, parental relationship, teacher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